시 론

지역 활성화와 스웨덴 말뫼대학의 교훈

주 정 민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쇠퇴하며, 대학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문약어인 라이스(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로도 불린다. 라이스(RISE)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발전과 인력양성 모델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체계이다.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일천억 원씩 지원해주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라이스(RISE)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성공사례가 스웨덴 말뫼시와 말뫼대학이다. 작은 항구도시인 말뫼시는 1990년대 초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도시가 황폐해졌다. 전체 일자리의 25%가 줄었고, 실업률이 22%까지 치솟아 시민들은 도시를 떠났다. 스웨덴 정부와 말뫼시는 시민들과 6개월간의 토론을 거쳐, 바이오, 정보기술(IT),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998년에 옛 조선소 부지에 말뫼대학을 설립했다.

말뫼시는 젊은이들이 대학에 와서 편하게 공부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대학에 약 2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대학은 북유럽의 젊은 학생들이 와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국제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말뫼대학은 5개 학부에서 2만4천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단기간에 북유럽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말뫼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노동집약적인 도시에서 친환경, 바이오, IT 산업도시로 전환을 추구했다. 시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470㎞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말뫼시를 연결하는 외레순(Øresundsbroen)교를 건설해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교통망도 구축했다. 2007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말뫼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다.

말뫼시는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했다. 대학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옛 조선소 건물을 개조해 스타트업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기관인 밍크(MINC), 미디어 이볼루션 시티(Media Evolution City), 메데온 사이언스 파크(Medeon Science Park) 등을 잇달아 개관해 창업자에게 기술과 교육, 자본을 제공했다. 그래서 말뫼시는 하루 평균 7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출현했고, 말뫼시 인구의 절반인 약 16만 명이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는 도시로 변했다.

말뫼시는 1990년대 초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던 인구가 2023년 36만 명으로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말뫼시는 거주인구의 절반 이상이 35세 이하여서 유럽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됐다. 젊은 인력이 모여있고, 창업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소통되는 도시 분위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기업도 이전하고 있다. 딜로이트, KPMG, PWC 등 세계적 기업들이 북유럽 본사를 말뫼시로 이전했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말뫼시의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대학을 통한 지역혁신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엿볼 수 있다. 지역도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구축하고, 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와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은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해야 한다. 단순히 재정과 정책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젊은이와 기업이 모여드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기 고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지역의 힘

홍 승 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는 9월이다.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며 결실을 맺기 위해 연초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도 하나씩 돌아보게 된다.

안정적 병력 충원과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병무청은 올해 창설 54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병역은 우리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조성을 위해 시작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이 올해 21주년이 됐다. 그동안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변화를 거듭한 결과, 올해는 1만6천 여 가문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병역이 단순히 의무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 할 것이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의 꽃은 병역명문가 시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귀감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를 초청해 예우하는 행사가 '병역명문가 시상식'이라면 병역명문가를 찾아가 '병역명문가의 집'이 새겨진 문패를 손수 달아드리는 것은 대를 이은 나라 사랑에 헌신해 온 가문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행사다.

또한 국가·공공 기관 및 민간 시설과 협약을 통해 생활 속 실질적 혜택으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차장, 체육시설 등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등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필자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 부임한 올해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현장에서 '지역'의 힘을 발견한 큰 계기가 됐다. 지난 6월14일 지역에서 열린 병역명문가 시상식에는 주인공으로 초청된 15가문의 병역명문가와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참석한 광주시 인사, 31사단장,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기관장, 그리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병역명문가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넘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의 민·관·군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류와 축하의 장이 된 셈이다.

이날 병역명문가로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A의원은 지방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얼마 전 병역명문가 문패 달아드리기 행사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다. 병역명문가 문패 달아드리기 현장에서 만난 한 가문이 조선말기 가산을 털어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후손임을 알게 됐다. 함께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 역시 대를 이은 나라사랑의 표상인 애국지사의 후손을 만나니 존경을 넘어 숭고한 마음이 든다며 지역사회에서 병역명문가가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글로컬'이라는 말도 서로 통하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이끌어 가는 병역명문가가 삶을 영위하는 현실적인 공간이자 활동 영역이 '지역'이다. 병역명문가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우리 사회의 번영의 기반이 됐듯이, 그'인정'과 '지지'에 힘입어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글로컬 인재로 활약하고 있는 병역명문가를 현장에서 만나는 일은 가슴 벅찬 일이자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안보공동체의 한 기관장으로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역의 참여와 활동을 연결해 물질적 예우를 넘어 존경과 추앙의 사회적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독자투고

생명의 문 비상구 불법 폐쇄·개조 금지해야

15명이 사망한 2002년 군산 유흥주점 화재, 9명이 숨진 2012년 부산 노래방 화재,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모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해 발생했다.

이는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 사례다.

개인의 편리 또는 필요에 따라 무심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좁은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자신이 '생명의 문'이라는 비상구를 훼손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보통은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돼 화재 등으로 주 출입구가 막혔을 시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화재 발생 시 화염의 침투를 방지하는 등 화재 피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우리는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른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상구 장애물 설치·폐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걸 보도 매체를 통해 수없이 보고, 듣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게 현주소다.

소방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가 본연의 목적인 '생명의 문'이 되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 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물론 시설을 찾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은성·신안소방서 소방행정팀장〉

※ 독자투고를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기고는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社 說

역대급 전남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범위 대폭 확대해야

천직으로 여겼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농민들은 농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얼마의 보상금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삼 잎·줄기 마름(고사)을 농작물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피해 면적은 전체 재배 378ha의 38%에 달하는 135ha로 영암 68ha, 해남 42ha, 나주 19ha, 영광 5.7ha 등이다.

전남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벼멸구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도내 피해는 1만9천603ha로, 전체 재배 14만8천ha의 13.3%에 이른다. 지역별로 고흥 2천667ha, 해남 2천554ha, 보성 1천988ha, 장흥 1천776ha, 무안 1천500ha 등이다. 여기에 지난 주말 많은 비까지 더해졌다. 벼 도복은 8천158ha, 배추 생육 장애 642ha, 낙과 5.5ha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도복벼 기준 완화, 가루쌀 수발아 1등급 매입, 벼멸구와 호우로 인한 피해 벼 전량 잠정등외 매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

자연재난이 잦아지며 농작물 피해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테고 농가들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올해 여름 폭염특보가 평년에 비해 길고 최고기온도 껑충 뛰었다. 벼멸구가 번지며 인삼·채소 등 생육 장애로 이어졌다. 추석 연휴 직후엔 400㎜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곳곳에 침수 피해도 이만저만 아니다.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다. 쌀값 하락, 배추값 폭등 등 시장가격 왜곡까지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불가항력으로 손쓸 도리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금, 농업의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복구비를 제때 지급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재해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한 곳이라도 농가가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정부는 농작물재해 인정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

광주 성장동력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기대

광주시가 광산구 빛그린국가산단 인근 오운동 일원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정 부지 총 338만㎡ 가운데 321만㎡ 규모로 95%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연내 해제를 바라고 있다.

그린벨트는 국토교통부 환경평가 등급 3-5등급지 135만㎡(42%)는 조건없이 해제가 가능하고, 1-2등급지 185만㎡ 중 농지 104만㎡(33%)도 국토부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 81만㎡(25%)는 대체지가 있어야만 한다. 이에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서'를 5월 제출한 상태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될 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확보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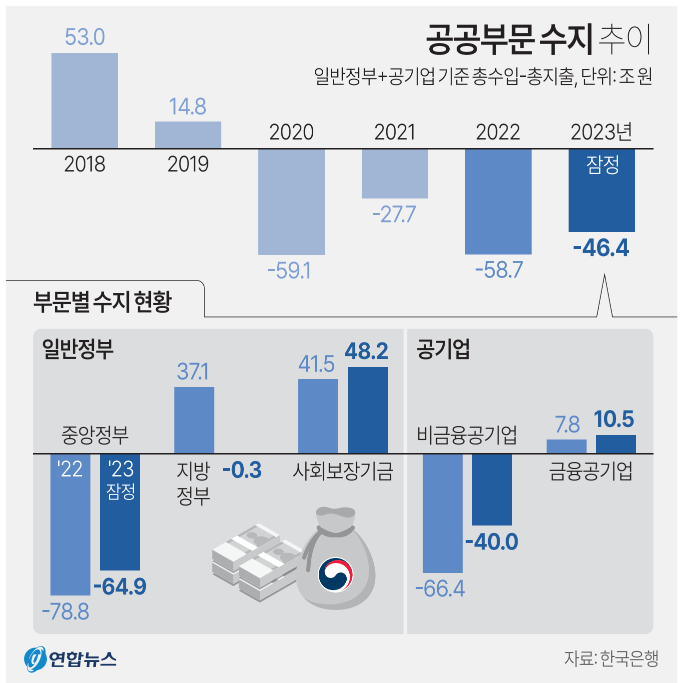
미래차국가산단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바꿀 기반이다. 광주시는 민선8기 전반기 미래차국가산단에 이어 진곡산단-빛그린국가산단-미래차국가산단의 삼각벨트를 연결한 220만평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율차 실증과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최첨단 전장부품 단지로 건설한다. 여기에 이미 조성된 빛그린, 진곡산단을 각각 친환경 미래차 생산, 부품 개발단지로 전환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핵심 하드웨어인 미래차국가산단이다. 조속히 그린벨트라는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체지 협의를 올해 내 마쳐 속도를 낼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광주시가 제안한 대체지는 북구 금곡동 일원 81만7천108㎡(25만평)로 시유지여서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다.

정부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국무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여부를 최종 선정한다. 미래차 전진기지 광주에 힘이 실렸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으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광주시의 노력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뉴스

작년 공공부문 적자 46.4조원…4년 연속 적자 행렬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으나, 적자 폭은 2022년(58조7천억원 적자)보다 12조3천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1천106조7천억원)은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0%(11조5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1천153조1천억원)은 같은 기간 2.0%(23조8천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28조3천억원)에서 총지출(493조2천억원)을 뺀 적자는 6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5년 연속 적자지만, 2022년(78조8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